志鬼의 心火

옛 우리 선조들은 하늘에 네개의 불이 있고 땅에 다섯개의 불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늘에 있는 네개의 불 가운데 해가 뿜는 불인 眞火와 별이 별똥으로 뿜는 飛火를 陽火라 하고, 용이 뿜는 龍火와 벼락이 뿜는 雷火를 陰火라 하였다.

땅에서 나는 세개의 양화는 나무를 비벼서 일으키는 찬목지화(鑽木之火), 돌을 부딪쳐서 일으키는 획석지화(畫石之火), 쇠를 쳐서 일으키는 알금지화(戛金之火)가 있고, 다른 두개의 음화로 石油之火와 水中之火를 들었다.

또, 우리 선조들은 인체에서 나는 人火를 믿기도 했다. 이 인화는 민속적으로 풀이하기도 하고 佛經의 영향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대개가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흔히 心火라고 불렀다.

원효(元曉), 자장(慈藏), 의상(義湘)과 더불어 신라 불교의 4대 고승으로 불리우는 혜공(惠空)스님은 기이한 행적이 많기로 유명하다.

어느 날 혜공이 새끼줄을 만들어 가지고 영묘사(靈廟寺)에 갔다. 금당(金堂)과 경루(經樓)등을 새끼줄로 둘러친 뒤 강사(剛司 ;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사람)에게 사흘이 지난 뒤에 거두라고 했다. 사흘 뒤 善德女王이 절에 행차 하였는데 이때 여왕을 짝사랑하던 지귀(志鬼)의 심화(心火)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절이 모두 불타버렸지만 오직 새끼줄로 둘러친 이곳만은 화재를 면하여 여왕의 일행이 무사하였다고 한다.

속세상에 머물면서도 生滅의 법에 매이지 않고 불가의 참도리를 깨달은 것으로 잘 알려진 부설(浮雪)에게는 등운(登雲)과 월명(月明)이라는 이름의 남매가 있었다. 월명이 오빠 등운과 함께 수도하고 있을 때 월명의 미모에 이끌린 부목(負木 : 절에서 땔나무를 하는 사람)이 욕정을 품고 접근했다. 월명은 오빠에게 의논하였다. 등운은 부목이 그토록 소원한다면 한번 허락해도 괜찮다고 했다. 월명은 오빠의 말을 듣고 부목에게 몸을 허락했다. 소감을 묻는 오빠에게 월명은 "허공에 대고 장대를 휘두르는 느낌"이라고 했다. 부목은 다시 월명에게 몸을 요구해 왔다. 월명은 오빠의 승락을 받고 허락했다. 또다시 소감을 묻는 오빠에게 월명은 "진흙탕에 장대를 휘두르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런 일이 세번 되풀이 되었다. "굳은 땅에 장대가 부딪는 느낌"이라고 월명은 세번째 소감을 오빠에게 말했다. 등운은 그제서야 깜짝놀라 누이에게 결단을 요구했다. 애욕과 견성(見性)의 두갈래 길에서 어느편이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월명은 부목에게 아궁이의 숯불을 꺼내 달라고 부탁했다. 부목이 무심코 허리를 구부려 반신을 아궁이 안으로 넣는 순간 월명은 부목의 등을 밀어 아궁이 안으로 쓸어 넣었다. 부목이 아궁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이번에는 등운이 발로 차서 못 나오게 했다. 그리하여 부목은 타죽고(燒死)말았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용맹정진하여 한 주일만에 깨달음을 얻었다.

금강산은 절하고 싶은 산이요, 변산(邊山)은 어루만지고 싶은 산이라고 한다. 변산 월명암의 낙조는 양양(襄陽) 낙산의 해돋이와 함께 우리나라 동, 서 해안의 절경으로 이름 나 있다. 화재(火災)가 잦기로도 유명한 월명암은 신라 신문왕 때 월명의 아버지 浮雪居士가 창건한 이래 여러차례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때마다 큰 스님이 출현하였다고 한다.

여왕을 사모한 지귀의 心火가 영묘사를 태웠듯, 깨달음에 이르기 까지의 월명낭자의 심화가 그런 조화를 부렸던 것은 아니었는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방화(放火) 또한 심화의 다른 형태는 아닌지. 구도(求道)의 길을 상상조차 못해보는 범인(凡人)에게는 그저 어려운 문제일 뿐이다.

金 東 一 / 危險管理部 課長